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세월호 유가족·오월어머니들 가족잃은 아픔 나눠

실버공연단 '입을 위한 행진곡' 오카리나 연주
 '5·18 석학' 美 카치아피카스 교수도 찾아
 일본 철도노조원 5년째 舊 묘역 등 참배

5·18 기념식 이모저모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따로따로 진행됐다.

'입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유족 등 5월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기념식에 불참, 별도의 기념식을 치렀지만 추모 열기는 절정을 이뤘다.

○...광주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만난 5월 어머니와 세월호 희생자 어머니들은 서로 열렬하고 위로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20여명은 이날 오월 어머니집 회원 50여명에게 직접 만든 탈실 브로치를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월 어머니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 팽목항을 오가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달래 바 있다.

오월 어머니집 회원들은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말없이 보듬고 "우리가 그대의 아픔을 알고 있소"라며 위로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 자리 잡은 '민주의 종'이 제창 10년 만에 5·18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33차례 타종됐다. 이날 타종식에는 8명이 참여하게 돼 있으나 5·18 관계자 등이 함께하면서 2개조 나뉘어 각 17번과 16번 종을 울렸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광주명예 시민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타종에 참여했다.

또 영호남 갈등해소와 교류 증진을 위해 광주를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외국인인면서도 명예시민인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 웨트워스대 교수도 타종에 동참했다.

시민 성금 등 14억6000여만원을 들여 만들어진 민주 종은 2005년 10월 옛 전남경찰청 차고에 마련된 종각에 설치됐으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때문에 2008년 종각이 해체돼 환경관리공단에서 임시 보관해 왔다.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회원 100명은 오카리나로 '입을 위한 행진

곡'을 연주, 눈길을 끌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 공연단은 "이날 공연을 위해 두 달 전부터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연습해왔다. 한 치의 실수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참석자들이 만족했음 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80년 5월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5·18 석학' 조지 카치아피카스(66·George Katsiaficas) 미국 웨트워스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가 정부 기념식장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장을 찾아 관심을 끌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이날 "둘로 쪼개진 5·18 기념식은 정부가 시민과 불통하는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며 "35년이 지난 현재도 5월 광주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1일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 50주년 시민의 날 및 광주인권헌장 선포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명예(광주)시민증을 수여받는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전남대 5·18 연구소 초빙 교수로 활동하며 5·18 민주항쟁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잇따라 발간하는 등 5·18 세계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일본 철도노조원들이 5년째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일본철도(JR)서일본노조조합원 61명은 이날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의 안내를 받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에 참석, 참배했다.

이들은 지난 31주년 기념식 이후 매년 빼놓지 않고 5·18 기념식에 참석해 왔으며 지난 16일 들불열사기념사업회와 5·18 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일 노동자 국제 연대 행사'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

JR 서일본노조 야스다 위원장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광주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고 싶었다"며 "오는 7월 26일에는 오사카에서 1000명의 노동자와 5·18 35주년 정신 계승 집회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5·18기념 미사

18일 밤 광주시 동구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5·18 기념 미사가 열렸다. 미사를 마친 신자들은 금남로 5·18 민주광장까지 촛불행진을 하고 주먹밥 나눔행사도 열면서 80년 5월을 되새겼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초등생 85% "아빠와 대화 거의 안해요"

주로 학교생활·교우관계 얘기

초등학생들 대다수가 부모 중에 엄마와 주로 대화하고 아빠와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생들은 부모와 가장 대화하고 싶지 않은 주제로 '인터넷·게임 사용제한'과 '공부·성적·장래희망'을 주로 꼽았다.

초등 가정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출판은 전국의 초등학생 2만2819명을 대상으로 최근 온라인설문을 한 결과, 부모님 중 엄마와 주로 대화를 한다는 응답자가 85%로 나타났다. 18일 밝혔다.

순천시 빗길 시내버스 뒤집혀 승객 11명 부상

18일 오전 11시 순천시 해룡면 효사랑 요양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모(여·48)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3m 아래 눈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노모(여·61)씨 등 승객 11명 전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버스 운전기사 신씨는 팔마실내체육

15%에 불과했다. 부모와 대화 주제는 학교생활이 66%고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15%), 공부·성적·장래희망(9%), 가족(4%), 연예인, 방송(3%), 게임·인터넷·모바일(2%), 외모(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주제로는 게임·인터넷·모바일 사용에 대한 제한(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부·성적·장래희망(22%), 외모에 대한 관심(22%), 연예인·방송과 관련된 팬 문화(10%), 현재 기분이나 생각(8%), 학교생활(5%), 교우관계(4%), 가족(3%)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관에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으로 향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과속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 해질 19:32 / 달 뜨기 06:21 / 달 지기 20:35

비 끝나자 '무더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4/30	보성	맑음	11/29
목포	맑음	14/24	순천	맑음	14/30
여수	맑음	15/25	영광	맑음	13/24
나주	맑음	12/29	진도	맑음	13/24
완도	맑음	14/27	진주	맑음	14/27
구례	맑음	11/30	군산	맑음	14/20
강진	맑음	11/29	남원	맑음	11/27
해남	맑음	12/27	흑산도	맑음	13/20
장성	맑음	11/28			

비대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서~북서	0.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1.5	서~북서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서~북	1.0~1.5	서~북서	1.0~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55	14:59	08:05	20:12
여수	09:46	22:17	03:36	15:44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	☀	☀	☀	☀	☀	☀
13/24	12/26	14/27	15/28	15/29	16/29	16/29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부안수협이 모든 제품은 100% 국내산입니다.

WWW.buansuhyup.co.kr

부안수협수산물가공공장

문의 063)584-3101